

# “왜곡된 5·18, 소설로 교정·복원하고 싶었습니다”

“집필하는 기간만 따지면 꼬박 30년이 세월이 걸렸습니다. 1980년의 체험이 소설로 완료되기까지는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요. 저는 왜곡된 역사를 소설로 교정하고 복원하고 싶었습니다.”

70세가 넘는 소설가의 표정에는 감회가 어렸다. 첫 번째로 가깝고 왜소해 보이는 체구였지만 특유의 강단이 느껴졌다.

최문경 소설가가 5·18 44주년을 기념하는 대하소설 ‘불어오는 바람’ (9권, 문예비디)을 펴내 화제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최 작가는 “5·18은 당시 신군부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사건”이라며 “저들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했다.

근기가 뻗 목소리를 타고 마치 역사적 현장에 있는 듯한 떨림이 전해졌다. 작가는 80년 5월 당시 광주동에 살았다고 한다.

“80년 5·18 때, 전남도청 지번은 광산동 1번 지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광산동 72번이었죠. 도청 옆 광주은행 남부지점 뒤쪽으로 헬기가 날고, 총알이 우리집 지붕위로 날아다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공수부대원들이 젊은 남자들을 군용차량에 싣고 가고 ‘폭도’로 간주해 사살하고 암매장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 작가는 당시 남편과 아이들 셋은 봉산동 친척집으로 피신 갔다고 했다. “자신은 도청 앞 금남로 현장에서 주먹밥을 나르고, 헌혈, 상무관 시신처리 봉사자도 활동하기도 했다”는 말에서 당시의 모습이 그려졌다.

10일 간의 광주민중항쟁기간 신군부가 선

최문경 소설가, 5·18대하소설 ‘불어오는 바람’ 9권 펴내 30년 집필...80년 당시 광산동 거주 금남로서 봉사 활동 처절하고 참혹했던 광주 ‘눈’으로 기억하고 노트에 담아

량한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만행은 고스란히 소설의 질료가 됐다. 작가는 당시 처절하고도 참혹한 광주를 ‘눈’으로 기억하고, 노트에 담았다. 소설은 광주민주화운동 발발에서부터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를 앞세워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군사정권이 하강 곡선을 그리는 지점까지 아우른다.

이번 작품은 원고지로 1만5000매가 소요됐다. 당초 15명의 주인공 이야기를 2만매로 썼지만 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었다. 모두 11명의 인물을 주인공 시점으로 형상화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44주년이 흘렀는데, 소설 완간이 늦어진 이유가 궁금했다. 이에 대해 작가는 “91년 표현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92년부터 광주시민일보(현 시보)에 5·18 관련 이야기를 일부만 연재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흘러 마침내 대하소설이라는 ‘그릇’에 ‘광주’의 이야기가 담기게 된 거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인물은 모두 11명. 김득수, 권덕룡, 박기중, 예당택, 윤효정, 송광민, 임규정, 염창호, 염평식, 강민정, 득랑택이 그들이다. 작가는 일반적인 대하소설이 취하는 서사적 줄거리 방식보다 등장인물의 행적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작가는 당시 수집한 사료에 소설적 상상력과 허구를 가미했다. 공간적 배경은 보성군 문덕면 주암호 수몰지구가 중심이며 이곳에 토대를 둔 인물들을 취재했다. 사실과 허구에 오랫동안 작가의 내면에서 ‘발효’라는 시간과 맞물려 소설로 전이됐다.

문학평론가 김중희 전 경희대 교수는 “이 소설 이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은 단편·장편·대하소설을 막론하고 부지기수 못했다. 홍희담·최은·임철우·한강 등의 작가를 별반 어려움 없이 떠올릴 수 있다”며 “여기에 최문경이 하나의 획을 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적 성과를 제시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학사적 진전이다”고 평한다.

여고시절부터 소설을 썼다는 작가는 지난 99년 지방 신춘문예로 등단 후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후 서울로 이주했다가 지금은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창작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마는 끝나지 않았다’, ‘붉은 새’ 등 10권의 장편소설과 ‘파랑새는 있다’ 등 단편소설집을 펴냈다. 광주문학상, 문예비디 소설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최 작가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로 “어린 시절 두 살 아래 여동생의 죽을 때”라고 했다. 자신과 여동생이 흥역을 앓았는데 당시 여



최문경 소설가

동생이 “언니야, 너는 살아야 한데, 내가 대신 죽을 거다”라는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건강이 닿는 한 창작을 지속할 작정이다. 아직 출간하지 못한 장편소설이 10권 분량이나 된다는 말에서 문학에 대한 열망의 깊이가 느껴졌다.

“소설 쓰기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작품을 구상하면서 일찍 떠난 여동생의 환영과 인물들을 만날 수 있고 쓰는 시간만큼은 무의미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창작과 연관된 세계가 체계는 의미 있어 보이고, 나아가 그것의 의미 있어 보이는 구원의 시간으로 환원되기 때문이죠.”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계인, 한국인, 화순인

배회권 초대전, 30일까지 화순 다산미술관



‘평화 얼굴’

얼굴은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드러낸다. 얼굴에는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인생 사십 이후에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얼굴에 드러난 표정이나 빛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상화는 인상을 관찰해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 등을 연구하는 분야다. 얼굴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은 물론 삶에 대한 자세, 의지와 영혼, 성품 등이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얼굴 좋은 것보다 성격 좋은 것이 좋고, 성격보다 마음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심상과 얼굴, 성격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세계인들의 얼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화순사람들이 얼굴을 모티브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평화얼굴’ 작가 시온칸 배회권이 화순 다산미술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여는 전시가 그것. ‘세계인, 한국인, 화순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5대양 6대주 인종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린 드로잉 작품 등이 전시된다.

특히 작가는 전시 기간 화순인들의 얼굴도 그려나갈 예정이다.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화순 지역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배회권은 얼굴을 콘텐츠화하는 것에 대해 “얼굴에 깃든 의지와 영혼, 개인의 염원을 한곳에 집적화해 인류가 극복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문제들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했다”며 “작품 감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시실에는 ‘인종의 전시장’이라 할 만큼 천차만별의 얼굴들이 관객을 맞는다. ‘평화얼굴’은 얼핏 회화미를 감상하는 것도 좋고 한편으로는 세계에 산재하는 많은 가면을 보는 느낌도 준다. 각각 얼굴의 이목구비는 크기나 모양, 발현하는 이미지 면에서 상이하다. 무엇보다 서글서글한 두 눈을 통해 얼굴의 주인공들은 우리는 모두 ‘한가족’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전시실에는 “이전 지역인 나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나주 학생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예술위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인간’과 ‘인간성’...오늘의 사회와 미래 사회의 단면

ACC SF 시리즈 연극 2편 첫 선

‘대리된 존엄’·‘거의 인간’ 무대에

미래 사회는 예측하기 힘들다. AI와 과학의 발달로 지금 시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출산 또한 하나의 양상으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날 최하계중인 소녀 엘리스는 가족을 돕기 위해 왕립대리모센터에 입소한다. 그녀는 자신이 선진국 전문직 부부에게 간택됐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과연 엘리스와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미래 사회에 도래할지 모를 극단의 모습을 연극으로 형상화한 두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첫 SF 연극 ‘대리된 존엄’ (7월 12일-13일)과 ‘거의 인간’ (8월 23일-24일)을 예술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ACC 공연 레지던시 사업’을 토대로 진행됐다. ACC SF 시리즈로 첫 선을 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제 연구부터 무대화까지 이어졌다.

양수연 학예사는 “지금까지 SF장르는 문학이나 영화에서 다채롭게 창작, 제작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SF연극은 무대를 배경으로 미래



‘대리된 존엄’ 쇼케이스 장면. <ACC 제곡>

어느 시점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발휘해 풀어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먼저 ‘대리된 존엄’은 인공 자궁을 매개로 한 대리모산업의 이면을 다룬 작품이다. 언급한 대로 최하계중인 소녀 엘리스 이야기를 토대로 대리될 수 없는 인간성 문제를 초점화한다. 문정연이 극본을 쓰고 최여림이 연출을 맡았다.

두 번째 작품 ‘거의 인간’은 ‘포스트 코로나



‘거의 인간’. © 국립정동극장

시대 이후 포스트 휴먼’을 주제로 한 서사다. 발레리나인 재영은 남편의 설득으로 인공자궁을 통해 출산을 결정한다. 인간문화재 심사를 앞둔 재영의 심리는 점차 복잡해지는데, 구두리가 극본을 쓰고 김수희가 연출을 맡았다. 지난 2022년 ACC 공연 레지던시를 통해 대본이 개발됐고 올해 국립정동극장 세실 ‘창작ing’에 선정됐다.

이강현 전당장은 “올해 ACC 무대에 선을

보이게 되는 SF 연극 두편은 ‘인간’, ‘인간성’ 등을 키워드로 오늘의 사회 그리고 닥쳐올 미래 사회의 단면을 그렸다”며 “작품을 통해 인공문제와 맞물린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사유하는 한편 담론 제공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관람료 전석 2만원,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낭만주의 정수 클래식 선율에 깃들다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Ⅱ...14일 광주예술의전당

스타일리쉬한 피아니스트 김희재와 광주시향의 환상 호흡.

광주시향교향악단이 오티움 콘서트Ⅱ ‘Early Romantic’을 오는 14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의 지휘·해설과 함께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로 꼽히는 베버, 멘델스존, 베를리오즈 등의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독일 국민 오페라를 수입했다는 평가를 받는 베버의 오페라극 ‘미탄의 사수’로 막을 연다. 가장 중요한 독일 낭만 오페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사냥꾼 카스파르가 전설 속 백발백중의 마법 탄환을 만들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화려하면서도 감미로운 도입부로 이목을 사로잡는 작품이다. 피아노 독주 부분에서 피아니스트의 기교가 도드라지는 구성이며 협연에 피아니스트 김희재.

김희재는 BBC 라디오3로부터 ‘사려 깊고 스타일리쉬한 연주, 반드시 주목할 만한 이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영국 리즈 국제피아노 콩쿠르 2위



김영연 지휘자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 산마리노 국제 콩쿠르 3위, 스페인 마리아 카날스 국제음악콩쿠르 (3위) 등 다수의 수상을 이어왔다. 현재 한양대 피아노과 조교수. 가곡 ‘노래의날’은 멘델스존의 6개 가곡 중

2번째로 유토피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하이네의 시에 음을 붙인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에서 극중 꼬리칸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현 하나만으로 이 작품을 연주해서 비극성을 자아낸 바 있다.

끝으로 프랑수아 낭만주의 작곡가 베를리오즈 ‘로마의 카니발’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카니발(축제)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 당대에 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대학로 연극배우에게 직접 배워요”

예술위, 나주서 ‘빛가람 꿈쟁학교-나도 배우’ 모집

나주에서 대학로 연극배우에게 직접 배우는 연기·영상 수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나주에서 ‘빛가람 꿈쟁학교-나도 배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학생 청소년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연기와 배우에 관심 있는 관내 중학생 누구나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6-2019년 3000여명 이상 중학생들이 참여한 뒤 중단됐던 ‘대학로 꿈쟁학교-나도 배우’ 프로그램 일환이며 이번엔 나주에서 재개한다. 예술위와 나주서,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해 기획했다.

교육은 참여형 연극 및 체험, 영상수업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대학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플레이그림 쟁쟁’ 연극 배우들이 강사로 나서 오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예술위 나주 본관에서 총 4회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7시, 7월 6일은 제외)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기의 이해와 대



‘플레이그림 쟁쟁’ <출처 서울문화포털>

본보기’, ‘연기훈련 및 대본연습’, ‘실제 촬영 및 리허설 진행’을 비롯해 ‘최종 리허설’ 등이 있다.

예술위 관계자는 “이전 지역인 나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나주 학생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예술위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